

# BAZZAAR

Harper's

# ART

APRIL 2015





마이클 주의 'Locale Inscribed (사막에서 Eisa와 함께 태양을 향해 걷는 것)', 20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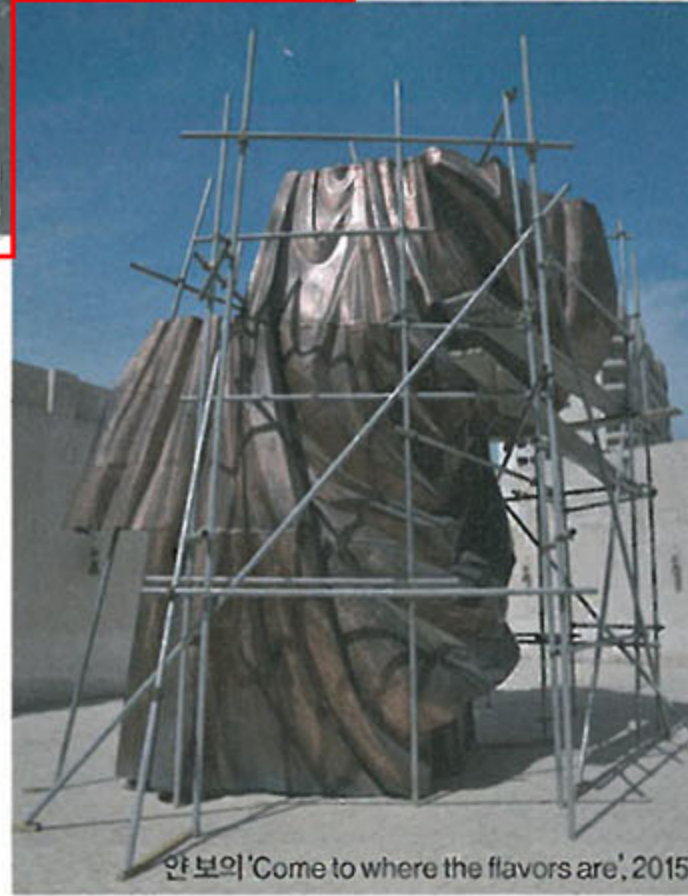
그간 유라시아 대륙 건너편까지는 좀체 소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샤르자 비엔날레는 199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 예술 행사는 아랍에미르를 세계 경제와 문화 도시의 리스트에 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 그 한가운데 통치자인 술탄 빈 모하마드 알 카시미의 딸 후르 알 카시미가 있다. 비엔날레를 운영하는 샤르자 예술재단의 대표인 그녀는 말하자면 '공주'다. 영국에서 예술을 공부한 예술가인 동시에 5년째 모마 PS1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막 전날 만난 후르는 검은 아바야를 입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1980년부터 샤르자에서 문화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묻는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난 샤르자 비엔날레를 위해 태어난 것 같다. (웃음)" 지난 2009년부터 디렉터를 역임해온 그녀는 예술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샤르자가 예술과 함께 성장했듯이 이곳의 어린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교육적인 부분, 더 나아가 대중과의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전시를 보러 온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이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게리 시몬이라는 미국 작가는 아이들이 뛰어들 수 있는 크로켓 경기장을 만들었고, 2012년 양현미술상 수상자인 아브라함은 실제 상점에 새와 동물을 판매하는 샵을 작품으로 꾸몄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소통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준 아르헨티나 작가 에두아르두 나바로의 'XYZ'는 감각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후르 알 카시미는 오는 5월 열릴 베니스 비엔날레의 아랍에미르관의 큐레이팅을 맡았다. "어떤 이들은 현대미술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내 생

각은 다르다. 많은 이들이 아랍에미르에서 이런 예술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했다. 심지어 두바이 갤러리에 있는 이들조차 이곳의 예술 역사를 모른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예술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하지만 샤르자 비엔날레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랍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가 땅에서 자생하는 예술을 추구한다"는 그녀는 이번 샤르자 비엔날레에서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를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와 작품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아트 월드의 일과를 마치고 모두 두바이에서 열리는 애프터 파티나 술집으로 향할 시간에도(샤르자에서 술은 불법이다) 샤르자의 헤리티지 지역 광장에서는 영화 상영과 퍼포먼스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번 비엔날레의 테마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은 예술세계뿐 아니라 도시 자체의 비전을 담은 주제다. 그리고 이는 비엔날레 전체를 큐레이팅한 주은지의 예술에 대한 믿음과 교집합을 만든다. 개막 전날 만난 그녀는 앙리 르페브르가 쓴 도시에 대한 글에 영감을 받았고, '과거, 현재, 가능성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시적인 문장을 발견했다고 했다. "어느 날 아티스트인 안 보와 함께 뉴욕 거리를 걸으며 얘기했어요. 아트 시장에서 타협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믿는 예술



안 보의 'Come to where the flavors are', 2015

이 대중들과 공감할 만한 것인가의 문제가 화두였죠. 그렇다면 아트 이전에 난 무엇에 관심이 있었나 돌아보니 바로 자유라는 것이더군요. 마음이 자유로운 곳,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예술의 담론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미래는 신화예요. 픽션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예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현재죠." 주은지와 대화를 나눴던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 안 보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헤리티지 구역의 어느 중정에 녹슨 자유의 여신상 일부를 떼어 가져다 놓았다. 행사장 곳곳에서 마주친 M+의 수석 큐레이터 정도련은 샤르자 비엔날레 방문이 처음은 아니라고 했다. "많은 비엔날레가 거대한 공간 안에서 유명작을 보여주는 추세인데, 이번 샤르자 비엔날레는 규모를 줄이고 깊이를 더한 것 같군요. 지난해의 절반인 51명의 작가들, 그중에서 36명이 샤르자의 상황에 맞는 새 작품을 냈다는 것부터요. 그리고 김범 작가의 경우에는 거의 회고전이래 해도 좋을 정도로, 전작들이 다채롭게 소개되었어요." 주은지 큐레이터는 오래 교류해온 각국의 작가들을 불러 모았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샤르자에



레바논 출신의 93세 예술가 살루아 라우다 슈케어의 다양한 작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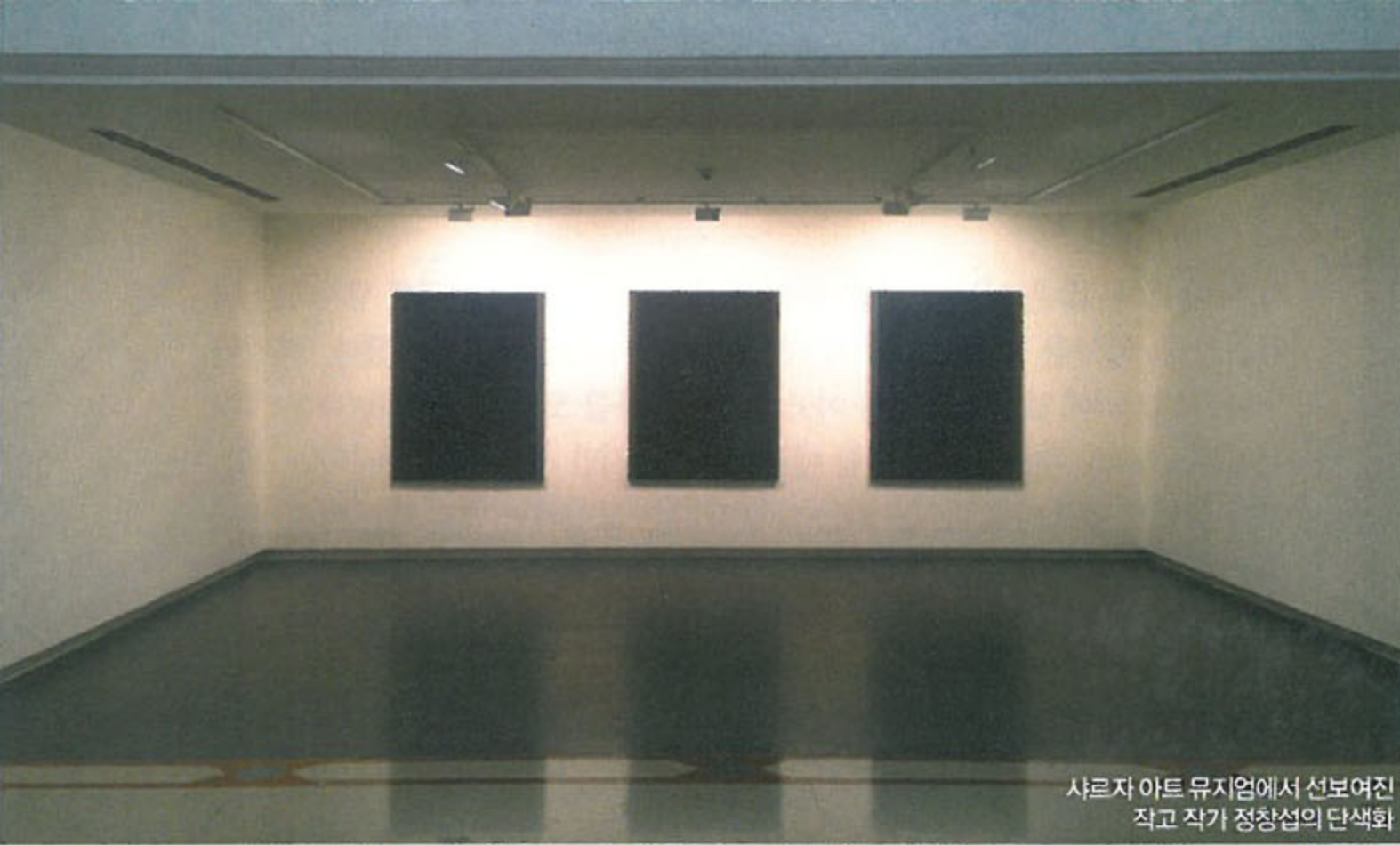


파피 에보타니의 퍼포먼스 'Fanfare funeraillies(Funeral br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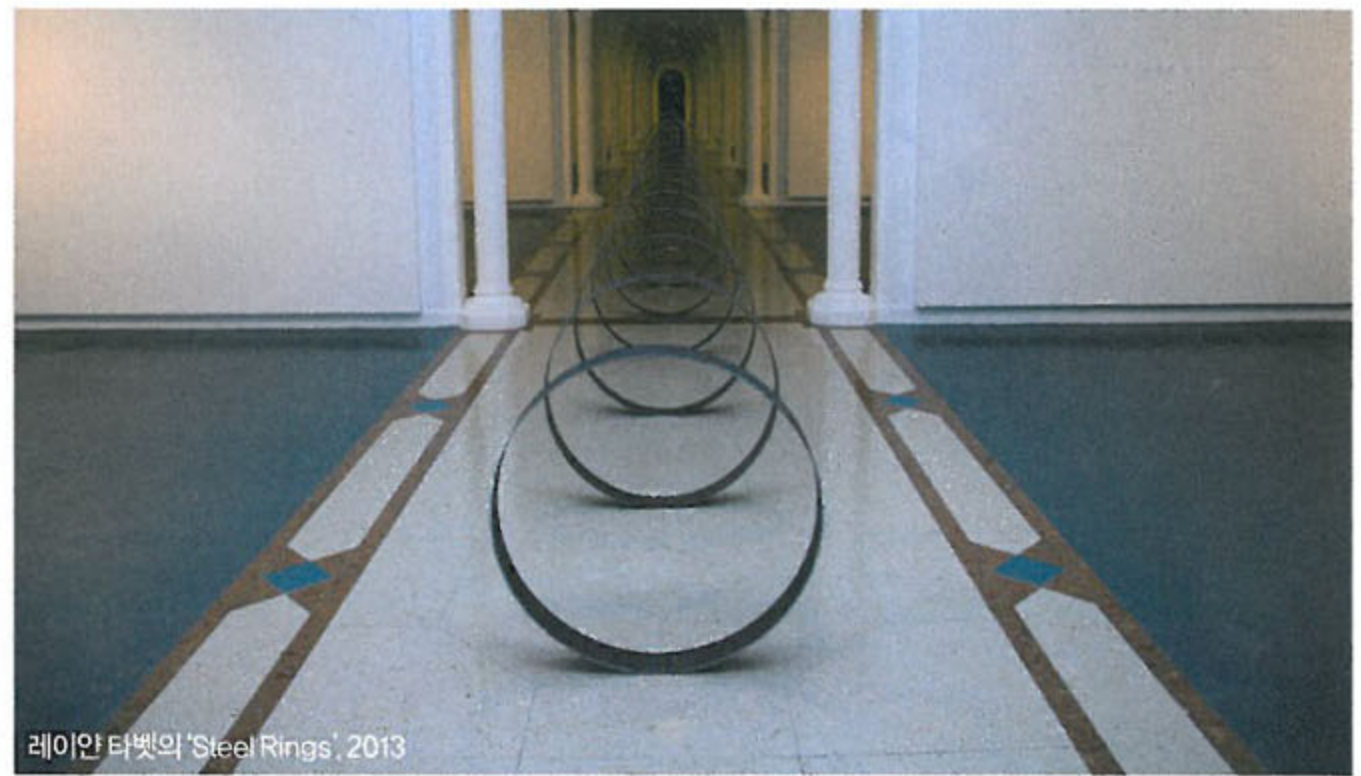
오프닝 행사에서 작품 설명 중인 후르 알 카시미 대표와 주은지 큐레이터



리그리트 티라바니아의 친환경 프로젝트인 'Untitled 2015(Eau de Rose of Damas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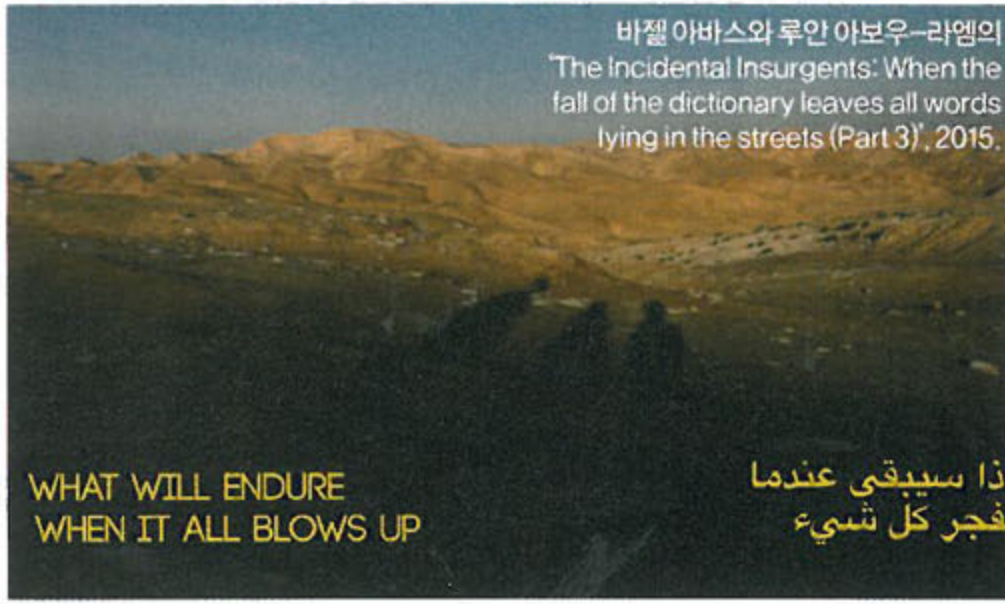
샤르자 아트 뮤지엄에서 선보여진 작고 작가 정창섭의 단색화



레이안 타벳의 'Steel Rings', 2013



에두아르두 나바로의 공공 예술 'XYZ' 2015



바젤 아바스와 루안 아보우-라옌의 'The Incidental Insurgents: When the fall of the dictionary leaves all words lying in the streets (Part 3)', 2015.

WHAT WILL ENDURE WHEN IT ALL BLOWS UP

إذا سبقني عندما تفجر كل شيء



2012년 양현미술상 수상자인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의 'Reconstruccion2: Here We Stand', 2015

머물며 '장소특정적'인 작품을 고민했다. 샤르자 비엔날레는 예술 관련자들은 물론 연구기관과 학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적극 주선하며 도시의 크고 작은 '현재'를 피상적이지 않게 담아내도록 후원했는데, 참여 작가들은 이 과정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다. 양혜규도 마찬가지였다. "도시계획학자, 고고학자 등에게 이곳의 전통 건축에 대해 배운 적도 있어요. 다른 작가들과 토론하고, 워크숍 하고, 영화 보고, 퍼포먼스 보고, 프레젠테이션 듣고, 답사 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샤르자의 상황이란 아랍권만이 가진 이국성이라는 말로도 해석된다. 샤르자의 풍경은 어쩔 수 없이 낯설다. 코란 경전이 울려 퍼지면 어딘가에서 쏟아져 나온 남자들이 서둘러 사원으로 들어갔고, 칸두라를 걸친 아랍 저널리스트들은 프레스 투어 도중에 한쪽에서 박스를 깔고 기도했다. 일견 신기하면서도 오랫동안 축적된 중동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최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나운 사건 위주의 정보 덕분인지 더욱 거리감이 느껴진다. (샤르자라는 곳에 간다는 말에 지인들 중 심중팔구는 이렇게 물었다. "거기는 괜찮아?") 중동의 참모습은 진실과 편견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유일하게 분명한 건 이 혼란스러운 양상이 작가들에게는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멕시코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가 선보인 'Talking Wall'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비밀 통로에서 영감 받은 작품이다. 전통 건축에서 활용한 환기 시스템을 접목했고, 그 결과 정치적, 문화적 장벽은 자연스럽게 '환기'

가 된다. 정원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일본 아티스트 시노다 타로는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연구를 기반으로 사막 정원 'Karesansui'를 만들었다. 브라질에서 온 신시아 마르셀은 중동의 개발 붐을 투영한 작품 'At the Risk of the Real'을 완성하기 위해 샤르자 전역의 모래를 모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남자들이 위에서 모래를 흩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바이런 김은 샤르자의 하늘을 페인팅한 '스카이 블루 플래그'를 해변도로에 걸어두었고, 이는 재현과 추상의 개념을 통해 국기처럼 거대한 것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라지는 걸 상상하게 만들었다. 샤르자 아트 뮤지엄의 한 층은 통째로 레이안 타벳 작가의 'Steel Rings'에 내주었는데, 실제 송유관의 일부를 떼어 온 것이라 했다. 한편 리그리트 티라바니아는 아예 전시장의 중정에 부엌을 만들고는 현지 셰프를 고용, 현지의 장미와 허브로 만든 시원한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프로젝트 혹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고고학자들과 협업한 마이클 주는 통통배로 5분 거리에 있는 포트 카리드 근처의 버려진 창고에서 과거 인류와 고고학적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 걸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를 접목하도록 만든다.**

특히 한국 작가들에게 중동은 조금 특별할지도 모르겠다. 양혜규의 말처럼 중동과 한국은 과거 꽤 가까운 산업적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감성적인 관계로는 소통되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두 명의 친구들은 '중동에 간 아버지'를 두었고, 이들은 때가 되면 미제 과자와 학용품을 학교에 갖고 왔던 것 같다. 아티스트 그룹 '믹스'



파블로 피카소의 'Break the Atom and Vegetal Life', 1962



신시아 마르셀의 'At the Risk of the Real', 2015